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등학교 국악지도 실태 조사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가 영

# 초등학교 국악지도 실태 조사 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가 영

# 인 준 서

김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의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 국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국악 수업의 비중과 교과서 활용 정도 및 수업 시 활용하는 국악기 등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체적인 국악 수업 실태에 대해 파악해본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주관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교사 국악 지도 능력 등 국악 수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국악지도에 대한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필요와 만족도 등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지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넷째, 심층 인터뷰를 병행 조사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 현황과 제재곡 연구 방법을 조사하여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대전 교육청 소속 음악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와 인터뷰 응답을 토대로 Windows PASW(SPSS) 18.0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주관적인 국악 지도의 어려움 및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음악 수업에서 국악에 비해 서양 음악을 많이 가르치며 국악 수업 시 지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의 결과 교사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하지만 그에 따른 지도법이나 학습 자료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교과서의 올바른 개편과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악 교육의 원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악 수업 시 비교적 수월하게 지도하는 내용은 가창영역 36.2%, 기악영역 23.7%, 감상영역 31.9%로 영역 간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 응답 교사의 79.7%가 국악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실기지도나 이론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국악 교육을 위해 교사 개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국악을 연구한 전담 강사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셋째, 초등 교사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이 국악 실기 관련 연수의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 포함 1회 이하의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응답자의 72.9%나 되었다. 국악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따라서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해 국악 연수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국악의 어려움과 지도하는 악기의 수( $r = -.21, p < .01$ ), 국악 실기 연수 경험( $r = -.16, p < .05$ )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다루는 국악의 비중과는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0, p < .01$ ) 또한 가창, 기악, 창작을 국악 실기 영역으로 감상과 이론을 국악 비 실기 영역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기 영역에 수월함을 느끼는 교사들이 국악 지도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t = 2.97, p < .01$ )

국악 교육은 앞서 언급한대로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모두가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국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악 교육은 변화를 거쳐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 목 차

|                                     |           |
|-------------------------------------|-----------|
| <b>I. 서론</b>                        | <b>1</b>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 문제 -----                      | 4         |
| 3. 연구의 제한점 -----                    | 5         |
| <br>                                |           |
| <b>II. 이론적 배경</b>                   | <b>6</b>  |
| 1. 국악 교육의 중요성 -----                 | 6         |
| 2. 교육과정과 국악 교육의 변화 -----            | 8         |
| 3.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과서 분석 ----- | 10        |
| 4. 선행연구 -----                       | 15        |
| <br>                                |           |
| <b>III. 연구 방법</b>                   | <b>21</b> |
| 1. 연구 대상 -----                      | 21        |
| 2. 연구 절차 -----                      | 21        |
| 3. 측정 도구 -----                      | 22        |
| 4. 자료 처리 방법 -----                   | 25        |
| <br>                                |           |
| <b>IV. 연구 결과 및 해석</b>               | <b>26</b> |
| 1. 설문지 결과 -----                     | 26        |
| 2. 심층 인터뷰 결과 -----                  | 48        |

V.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  |    |
|--|----|
| <표 1> 음악과 교육과정과 국악 교육의 특징-----                             | 9  |
| <표 2> 2007개정 교과서의 국악가창 제재곡의 종류-----                        | 12 |
| <표 3> 2007개정 교과서의 학년별 제시 장단-----                           | 14 |
| <표 4>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 23 |
| <표 5> 심층 인터뷰지의 구성 및 내용-----                                | 24 |
| <표 6> 교사의 성별-----  | 26 |
| <표 7> 교사의 교직경력-----  | 27 |
| <표 8> 교사의 심화전공-----  | 28 |
| <표 9> 실제 수업 시 국악을 다루는 비중-----                              | 29 |
| <표 10> 수업에 활용하는 국악기-----                                   | 30 |
| <표 11> 국악의 지도 내용-----                                      | 31 |
| <표 12>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                                    | 32 |
| <표 13> 국악 지도 시 어려움 여부-----                                 | 33 |
| <표 14>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의 이유-----                                | 34 |
| <표 15> 연수 경험 횟수-----                                       | 35 |
| <표 16> 연수의 효과-----   | 36 |
| <표 17> 희망하는 연수 내용-----                                     | 37 |
| <표 18>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에서의 필요-----                             | 38 |
| <표 19> 국악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 39 |
| <표 20> 교육대학의 국악교육 만족도-----                                 | 40 |
| <표 21> 효과적인 국악 지도의 방법-----                                 | 41 |
| <표 22>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경력과 지도 실태, 연수 경험, 지각한 어려움 간의 상관관계----- | 43 |

|   |    |
|---|----|
| <표 23> 수월함을 느끼는 영역에 따른 국악 지도의 주관적 어려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 44 |
| <표 24> 국악 지도 내용에 따른 지각된 주관적 어려움의 ANOVA 분석 결과-----       | 45 |
| <표 25> 연수 경험과 연수 효과의 상관관계-----                          | 46 |
| <표 26> 국악 연수경험으로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예언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 47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2007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 11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고대민족과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부터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인간의 삶에 함께 해왔다. 현대 사회에 있어 음악이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수단이 아닌 여러 목적이나 효과중대를 위한 수단이나 인간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기능으로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이러한 음악의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음악적 가치관과 음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sup>1)</sup> 따라서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고대와 삼국시대에도 존재했지만 보다 전문성을 띄고 있는 개화기 이후의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교육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며 그 나라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조직한 계획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풍부한 음악적 정서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특별히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며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자하는 목표<sup>2)</sup>가 설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

1)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2011) p.3.

를 반영하여 음악교과에서 국악의 비중은 점차 늘어 교과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국악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가 가진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음악을 올바르게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전통음악이 제대로 학습 되어야 한다. 전통음악은 민족적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음악적 모국어<sup>3)</sup>이며,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은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과 세계화되어가는 시대에 다른 문화권의 민족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바탕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국악은 국가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sup>4)</sup> 문화 경쟁력, 특히 한류(韓流)가 세계를 주도하는 21세기는 국악 자체로도 산업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통음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훌륭한 음악 교사들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분야가 음악 교사론 이다. 음악 교사는 먼저 교육자로서의 인성을 갖추어야 하고 음악적인 전문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기에 수반되는 기능적인 면과 감상, 이해, 통찰에 관한 영역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교사의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담당하는 교사에 의해 좌우된다. 교사의 훌륭한 지도와 노력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어서 교사들이 효과적인 국악지도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교과서 내의 국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

---

2)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2007).

3) 최중민 저. 국악의 새로운 습결. 서울: 행림출판(1998) p.33.

4) 변미혜.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교원교육. Vol.32, No.4, 2006, p.143.

보다,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악교육현장과 시행과정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sup>5)</sup>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변화했지만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전통음악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가 적었고, 그에 따라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이 대두되었다. 요즈음에 와서 일부 음악교사들도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음악교사들이 전통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으므로 학교교육 현장에서 지도상에 많은 고충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전통음악 역시 음악이므로 서양음악 식으로 지도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은 학생이 전통음악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 민족음악의 모습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에게 음악적인 체험은 곧 교사의 음악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국악을 자주 접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sup>7)</sup>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내의 국악 제재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악교육이 확대 되었다. 또한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교육의 1992년부터 특정 교과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능을 지닌 교사가 지도하여 보다 질 좋은 교수학습으로 교과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교과전담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교사의 특기·전공과 무관하게 출산예정교사나 병약자, 신규임용교사 및 명예퇴직 예정교사 등의 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정하여 학교 편의대로 운영하거나 매년 전담교과가 바뀌는 등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sup>8)</sup> 교과전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

5) 장사훈 저. 국악통론. 서울: 세광출판사(1976) p.435.

6) 김우현 저.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서울: 한국음악교육연구회(1995) p.136.

7) 교육부. 교육과정 해설서.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1999) p.98.

8) 권순주(2000),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음악교과 전담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과 운영방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국악교육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변화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국악교육의 의의와 변화 과정을 연구하고, 국악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활용의 정도와 연수현황, 시설의 문제점 등의 그 지도 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의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 국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 교사들의 국악 지도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며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연구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국악 수업의 비중과 교과서 활용정도 및 수업 시 활용하는 국악기 등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구체적인 국악 수업 실태에 대해 파악해본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주관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교사 국악 지도 능력 등 국악 수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셋째, 국악지도에 대한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필요와 만족도 등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지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넷째, 심층 인터뷰를 병행 조사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국악 연수 현황과 제재곡 연구 방법을 조사하여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

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무선 표집 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18개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써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설문 문항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타당도는 검증되지 않았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국악교육의 중요성

헝가리의 음악 교육가 코다이(Z. Kodály, 1882-1967)는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를 갖고 있듯이 음악도 모국 음악이 있으므로 자기 나라의 음악부터 잘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음악교육이 자기 나라 민요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음악 문화와 음악성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또한 민요는 그 나라의 말로 가장 부르기 좋고, 모국어의 알맞은 억양과 국민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여 음악의 새로운 기초적 요소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데 알맞다는 것이다. 전통 음악은 민족적 정체감을 가지도록 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민족 고유의 음악을 익혀 음악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전통음악은 민족적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음악적 모국어이다.<sup>10)</sup>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이다.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품고 있는 음악이며, 우리 민족 삶의 곳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온 음악이다. 우리 민족 문화이기에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 그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sup>11)</sup>

국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어받은 고유한 전통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sup>12)</sup> 국악교육은 고유문화를

9)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과학교육사(2008) p.236.

10) 최종민 저, *국악의 새로운 숨결*, 서울: 행림출판(1998) p.33.

11) 권덕원 저, *국악교육론*, 서울: 과학교육사(2009) p.4.

12) 권덕원 저, *국악교육론*, 서울: 과학교육사(2009) p.116-118.

보존시킬 뿐 아니라 창조적 변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지식하고 폐쇄적인 한국 음악이 아니라 언제든 발전 가능하고 열려있는 한국 음악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한류(韓流)가 문화 경쟁력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에 정체성을 알고 다른 문화권의 민족을 이해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바탕이 되므로 국악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적극화되어 감에 따라 일본의 민요나 창가만을 부르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전통음악과 언어를 말살시켜나갔다.<sup>13)</sup> 또한 해방 후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은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문화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전통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에서 비중을 더해가고 있으며 음악 교육학자들은 국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7번의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전통 음악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교과서 내 국악 관련 내용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도 전통음악 지도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는 물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 자체가 소홀한데 전통음악에 대해서 교사, 학생 모두가 잘 모르고 있으며, 음악이라 하면 아예 서양음악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관심과 흥미가 없다.<sup>14)</sup>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에 대한 결손 현상의 누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국악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더불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전통 음악

---

13)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2011) p.40.

14) 김우현 저,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서울: 한국음악교육연구회(1995) p.136.

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의 발전을 위한 교사의 능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국악 제재곡을 지도하는데 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 및 국악의 가치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국악에 대한 교사의 연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지속적인 수업연구는 국악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 2.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우리나라의 국악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흐름과 경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국악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체의 맥락과 그 안에서의 국악교육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 1차부터 2007 개정까지 음악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국악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음악과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특징<sup>15)</sup>

|              |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 국악교육의 특징  |
|--------------|---|---|
| 1차<br>(19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 연마 강조</li> <li>● '음악의 생활화' 영역 제시</li> </ul>                                 | 관련 내용 거의 없음   |
| 2차<br>(19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의 생활화' 영역 없어짐</li> <li>● 아동의 경험과 거의 관계없음</li> </ul>                         | 관련 내용 거의 없음   |
| 3차<br>(1973) | 교과서 노래에 정치적 영향<br>(경제부흥, 국민정신, 새마을 운동 관련)   | 우리나라 음계, 악기, 음악 등에 관한 내용 제시   |
| 4차<br>(19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능력 강조</li> <li>●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일부영향,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음</li> </ul>                    | 국악에 대한 포괄적 언급   |
| 5차<br>(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창, 기악, 창작을 표현 영역에 포함</li> <li>● 새로운 음악교육학적 이론 등장, 현실과의 괴리</li> </ul>          | 국악 감상 및 가창 영역 다소 향상   |
| 6차<br>(19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 영역 신설</li> <li>● 부분적으로 새 음악교육 이론 영향 (개념적 접근, 포괄적 음악성, 심미적 교육론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 지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li> <li>● 교과서 내 국악 비중 크게 증가</li> </ul> |
| 7차<br>(19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강조, 개념 이해 영역 구체화</li> <li>● 6차에서 일부 수용된 음악교육학 이론이 체계적으로 수용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장단 및 변형 장단 제시</li> <li>● 민요 음계 및</li> </ul>           |

15)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과학교육사(2008) p.99의 <표 3-1>를 수정 및 인용하였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 강조, 일부 유럽 교수법의 영향(코다이, 오르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김새 제시</li> <li>● 5음 음계 가락 짓기 제시</li> </ul>   |
| 2007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강조, 음악적 개념 이해 증시</li> <li>● 음악적 생활화 영역 강조</li> <li>● 세계 음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증시</li> <li>●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 내용 제시</li> <li>● 민요음계 및 시김새 제시</li> <li>● 장단에 대한 구체적 개념 지도</li> <li>● 생활에 관련된 놀이 노래 제시</li> </ul> |

### 3.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과서분석<sup>16)</sup>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의 영역은 이해와 활동으로 크게 나뉘는데 비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화영역을 추가하여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구분되었던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구분을 없애고 각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만으로 기술하였으며, 특히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인 '국악교육의 질적 제고'에 있어서도 내용체계에 구체

16) 신수정(2012), 학위논문(석사) 2007 초등 음악 교과서의 국악 영역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21-152. 을 발췌, 요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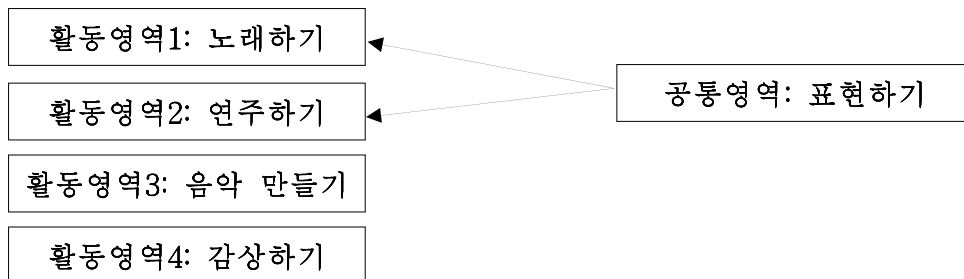
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악내용의 구체화 작업을 하여 국악내용을 선별, 체계화하여 내용체계에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에서 4~6학년의 국악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활동’, ‘이해’,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 1) 활동

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영역을 ‘표현하기’, ‘노래하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과 달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현하기’의 영역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 영역은 ‘노래하기’와 ‘연주하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학습요소를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활동영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 가. 노래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노래하기’는 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가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노래하기’영역 중 국악 관련 부분으로 ‘전래동요, 민요 부르기’를 통해 국악교육의 기초를 다지게 함과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도입으로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곡을 경험하게 하며, ‘민요를 메기고 받는 방식으로 부르기’를 함으로써 국악교육의 질적 제고에 더욱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4~6학년의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악곡은 전래동요, 민요, 창작국악동요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처음으로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가 있다. 각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가창 제재곡의 종류를 다음의 <표 2>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표 2> 2007 개정 교과서의 국악가창 제재곡의 종류

| 구분     | 4학년 | 5학년 |    |    | 6학년 |    |    |    |    |
|--------|-----|-----|----|----|-----|----|----|----|----|
|        |     | 금성  | 천재 | 태성 | 금성  | 천재 | 태성 | 태림 | 미래 |
| 전래동요   | 2   | 1   | 1  | 1  | 1   | 0  | 3  | 1  | 1  |
| 민요     | 5   | 5   | 5  | 3  | 5   | 5  | 5  | 3  | 5  |
| 창작국악동요 | 1   | 1   | 1  | 3  | 0   | 0  | 1  | 1  | 1  |
| 시조     | -   | -   | -  | -  | 1   | 1  | 1  | 1  | 1  |
| 계      | 8   | 7   | 7  | 7  | 7   | 6  | 10 | 6  | 8  |

## 나. 연주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에서 '연주하기'영역은 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기악'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연주하기'영역은 크게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와 리듬악기, 가락악기로 연주하기로 구성하고 있다.

## 다. 음악 만들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에서 '음악 만들기'영역은 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창작'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음악 만들기'영역에서 국악 창작수업은 음악과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 '음악적 창의성'을 우리 음악 어법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중요한 국악교수법이다. 구체적 활동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장단 풀 만들기, 여러 지역의 민요가락 짓기, 전래동요나 민요의 가사 바꾸기, 즉흥연주하기, 이야기 음악 만들기 등이 있다.

## 라. 감상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감상하기'영역은 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감상'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악곡의 느낌 말하기, 악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며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 2) 이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던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단, 가락, 형식, 악보, 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장단영역을 구체화하였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중 ‘장단’영역은 ‘장단의 세’, ‘장단꼴과 장단 세의 특징’, ‘장단의 한배’를 제시하며, ‘장단의 세’, ‘장단 꼴’, ‘장단의 한배’ 등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악곡의 종류를 쓰임에 따라 학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07 개정 교과서의 학년별 제시 장단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2007 개정 교과서의 학년별 제시 장단

| 구분  | 자진모리 | 세마치 | 긋거리 | 중중모리 | 중모리 | 계 |   |
|-----|------|-----|-----|------|-----|---|---|
| 4학년 | 4    | 2   | 1   | 1    | -   | 8 |   |
| 5학년 | 금성   | 2   | -   | 4    | 1   | - | 7 |
|     | 천재   | 2   | -   | 4    | -   | - | 6 |
|     | 태성   | 3   | -   | 4    | -   | - | 7 |
| 6학년 | 금성   | 1   | -   | 2    | 2   | 1 | 6 |
|     | 천재   | 2   | 1   | 1    | 1   | - | 5 |
|     | 태성   | 5   | 1   | -    | 2   | 1 | 9 |
|     | 태립   | 1   | -   | 1    | 3   | - | 5 |
|     | 미래   | 1   | 2   | 1    | 1   | 1 | 6 |

### 3) 생활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체계에서 ‘생활화’영역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는 점

이다. 생활화영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창의적, 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학교 내외의 음악행사에 참여하기,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개인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 5. 선행연구

국악 지도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후분<sup>17)</sup>은 국악교육과 감상교육의 위상 및 효과를 살펴보고 국악교육과 감상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위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학습 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설문지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악 감상교육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악 감상학습을 위한 지침으로 녹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재곡의 주요 부분 정도는 교사가 직접 연주하여 들려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년 전의 연구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사만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의견을 교수-학습에 가능한 많이 반영하려 했던 점과 국악의 영역별 지도 목적을 조사한 점이 인상 깊었다. 교사의 지도 방법과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점은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 참고 및 반영하고자 하였다.

---

17) 김후분(1994), 학위논문(석사) 국악교육 실태 연구에 따른 국악 감상학습의 제언: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이승아<sup>18)</sup>는 중학교 음악교과서 내에 있는 국악 교과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로 학생들의 국악에 관한 인식도에서 국악 선호는 2.8%로 매우 낮으며, 국악 활동도 저조하였다. 국악 분야별 선호는 사물놀이 34.7%, 민요 21.9%, 기악합주 19.3%로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 정서와 더불어 국악교육은 육성해야 하며, 교육 정책에서 보다 많이 배려해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국악에 관한 경험여부와 국악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학생들이 느끼는 국악이 차지하는 분량에 대해 조사한 부분에서 교육과정이나 학교와 교사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 국악 수업에서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은숙<sup>19)</sup>은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등학교 10곳의 교사 190명, 학생 298명에게 설문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및 결론으로 첫째,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학습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대다수 교사들이 교육대학교 음악교사 양성과정에서 국악교육을 전공 필수로 하여 교사들이 국악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셋째, 각 학교에 비치된 국악기는 주로 무율(無律)타악기가 전부였으며 참고용 악기의 비치도 전무한 상태다. 넷째, 보다 효과적인 국악교육은 특별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수업시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타위주의 교육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악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악교육 자료

---

18) 이승아(2000), 학위논문(석사)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 대구 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19) 김은숙(2002),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개발 보급과 연수기회 확대,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책 등이 제시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효과적인 국악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국악교육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국악교육의 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조성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국악수업을 위한 환경 및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연구였다.

민재은<sup>20)</sup>은 국악수업을 진행하는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국악성향과 수업내용, 국악선행지식경험, 해결과제 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로는 첫째, 현대의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국악수업에서의 멀티미디어의 사용도 크게 늘어났다. 둘째, 멀티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난데 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티나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악가창활동>활동내용은 멀티미디어를 듣고 따라 부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으며, 전통적 매체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악기연주>활동내용에서는 가르칠 때 교사의 시연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음악만들기>활동내용은 주로 국악곡의 노래가사를 바꿔 부르기였고 국악 음악 만들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이 40%에 가까워 창작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 졌다. 여섯째, <음악감상>활동내용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곱째, 국악을 배운 경험과 수업활동내용의 상관관계를 내어 보았을 때, 국악을 배운 경험이 늘어날수록 교과서 내의 국악내용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로 국악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교사의 국악지도 능력이며 이를 위해서 연수 참여와 같은 국악을 배우는 경험을 가져야한다

---

20) 민재은(2008),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 국악수업의 활동내용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고 하였다.

민재은의 연구는 설문지의 질문 구성에 있어서 비교적 고르게 조사가 잘 되었고 결과 분석 또한 명확하고 한 눈에 보기에 좋았다. 국악영역을 활동별로 나누어 조사한 부분과 특히 교사들의 세부 전공에 따라 국악을 지도하는 정도를 조사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더불어 눈에 띄었던 점은 교사들의 국악지도에 있어서 멀티미디어의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던 점인데, 본 연구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교사들이 국악을 비롯하여 그 밖의 수업 시에도 멀티미디어 사용량과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애선<sup>21)</sup>은 인천 지역의 담임교사 440명의 국악에 관한 관심도 및 활동 영역별 지도 실태, 국악교육을 위한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국악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실기 능력 부족이나 지도 능력 부족, 열악한 교육 여건 등으로 인하여 국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교사들이 국악교육의 활동 영역 중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영역은 가창영역이었으며, 기악 영역의 지도를 가장 어려워하였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을 위한 교구 및 시설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실기 위주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활용 가능한 국악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능과 충분한 교구를 갖춘 국악 실을 설치하여 국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며 전국의 국악교육 지도 실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애선의 연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교사의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

---

21) 이애선(2009),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의 국악교육 지도 실태 조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를 조사하였던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20%나 국악교육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국악은 잘 모르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교사들이 국악을 잘 모르는 이유와 그에 따른 지도 자신감과 현실적으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교사들이 국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악지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분석을 학급규모 별로 나타낸 부분은 타 연구들과 비교하여 크게 눈에 띄는 점이였다.

이명주<sup>22)</sup>는 중학교 9종 교과서의 모든 국악 가창곡을 수합하여 각 제재곡에 대한 교사의 현장 지도여부, 지도 자신감, 실기 연수 경험 여부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요와 단소 제재곡은 9종 교과서에 수록된 횟수가 많을수록 지도 경험, 지도 자신감, 실기 연수 경험이 높았다. 한편 제주 민요나 민요 외 가창 제재곡은 지도 경험, 지도 자신감, 실기 연수 경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사와 연수기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 교직 경력과 지도 자신감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고 교직 경력과 지도 경험은 양의 상관관계, 교직 경력과 연수 경험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이 짧은 교사와 경력이 긴 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국악교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민요 영역의 제재곡에 대한 지도 경험과 지도 자신감은 여교사에 비해 남교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에 따른 실기 연수 경험과 지도 경험, 지도 자신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도 경험과 지도 자신감, 지도 경험과 실기

---

22) 이명주(2009), 학위논문(석사) 7차 교육과정에서 의한 국악 제재곡 지도 실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수 경험, 지도 자신감과 실기 연수 경험은 모두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 경험과 실기 연수 경험의 상관계수는 .25로 가장 낮아 비교적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의 내용과 질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교사들은 실기 연수 경험과 지도 경험을 통해 실기 능력과 교수 학습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있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9종의 교과서를 택하여 해당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만을 측정도구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제재곡을 선정할 때 가창과 단소 실기 곡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의 지도 경험, 자신감, 실기 연수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각 제재곡마다 조사하였다.

본 선행연구를 통해 교과 제재곡 별 교사의 지도 자신감과 경험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지도환경과 교사의 지도 자신감과 연수의 현황을 조사하려고 한다. 이명주의 연구와는 다르게 지도 실태에 있어서 모든 제재곡을 항목에 삽입하여 조사하기보다, 교육 현장 속에서의 국악교육에 관한 인식 및 실제적인 어려움과 실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곡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아닌 지도 전반에 이르는 설문지를 완성도 있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의 지도 실태와 그에 대한 어려움 등을 교사에게 설문지 조사뿐만 아니라 심층 인터뷰를 병행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알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159명과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19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14명,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15명으로, 직접 음악을 가르치는 담임교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전체 226부를 배부하여 총 207부가 수거되었고 회수율은 91.59%이며, 여자 교사 176명과 남자 교사 31명 총 207명에게 조사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설문지에 응한 교사 중 20명에게 전화 및 지면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14곳을 선정하고 더불어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2곳,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1곳,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조사에 관한 양해와 설명을 한 후, 재직 중인 음악을 가르치는 담임교사 207명에게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뒤 수거하였다.

해당 초등학교의 홈페이지를 사전 조사하여 국악 전담 강사가 없는 학교

를 결정하여 조사하며 홈페이지에 교직원 현황이 나타나있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다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전화로 조사하고 담임교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 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한 해당 교사들 중 지원을 받아 총 2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는 민재은<sup>23)</sup>과 이애선<sup>24)</sup>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새로 제작하였다. 또한 설문지 개발 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배열 순서 및 보기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네 영역으로 설문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3문항, 수업 실태 3문항, 교사의 지도 능력 3문항, 국악 관련 연수 현황 3문항, 국악 지도에 대한 인식 및 과제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유형은 다지선택 형과 간단한 기술 형을 사용하였다.(표 4)

심층 인터뷰는 설문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실제 수업 시 국악지도 현황, 국악 및 교사의 지도 능력에 대한 인식, 수업에 관한 만족, 국악교육에 대한 연수 현황 및 과제 등의 구성으로 크게 20문항이다. 다음의 <표 5>와 같다.

---

23) 민재은(2008),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 국악수업의 활동내용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4) 이애선(2009),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의 국악교육 지도 실태 조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표 4>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 영역                      | 문항번호 | 문항내용              | 문항수(개) |
|-------------------------|------|-------------------|--------|
| 인적사항                    | 1    | 성별                | 1      |
|                         | 2    | 교직 경력             | 1      |
|                         | 3    | 심화전공              | 1      |
| 수업 실태                   | 4    | 실제 수업의 국악의 비중     | 1      |
|                         | 6    | 수업에 활용하는 국악기      | 1      |
|                         | 8    | 국악의 지도 내용         | 1      |
| 교사의<br>지도 능력            | 5    |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       | 1      |
|                         | 7    | 국악 지도 시 어려움 여부    | 1      |
|                         | 7-1  |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의 이유   | 1      |
| 국악 관련<br>연수 현황          | 9    | 연수 경험 횟수          | 1      |
|                         | 9-1  | 연수의 효과            | 1      |
|                         | 10   | 희망하는 연수 내용        | 1      |
| 국악 지도에<br>대한 인식<br>및 과제 | 11   | 국악지도에 대한 학교에서의 필요 | 1      |
|                         | 12   | 국악 발전을 위한 과제      | 1      |
|                         | 13   | 교육대학의 국악교육 만족도    | 1      |
|                         | 14   | 효과적 국악지도의 방법      | 1      |

<표 5> 심층 인터뷰지의 구성 및 내용

| 영역                     | 문항번호 | 문항 내용                             |
|------------------------|------|-----------------------------------|
| 인적사항                   | -    | 교사의 인적사항                          |
| 수업 현황<br>및 실태          | 1    | 국악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                   |
|                        | 2    | 국악 수업 시 학생들의 실력적 편차 여부와 그 이유      |
| 구체적<br>수업형태            | 3    | 전체 음악 수업 중 국악의 비중과 그 이유           |
|                        | 4    | 교과서 활용 정도와 교과서 외 수업자료 여부          |
|                        | 5    | 국악기 지도 여부와 구체적 지도 방법              |
|                        | 6    | 교과서 내 국악 제재곡의 선정 기준과 그 이유         |
| 교사의<br>지도능력            | 7    | 국악 수업 시 지도 영역과 그 이유               |
|                        | 8    |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갖는 영역과 지도 노하우         |
|                        | 9    |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과 그 이유            |
| 구체적<br>국악지도<br>방법      | 10   | 국악 가창영역의 장르의 선호 여부와 가창 지도 순서 및 방법 |
|                        | 11   |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과 구체적 지도 방법            |
|                        | 12   | 국악 실기 지도 시 구체적 수업 형태 및 교수법 여부     |
|                        | 13   | 국악 관련 과제 경험 여부 및 그 예              |
| 국악연수<br>현황             | 14   | 참여했던 국악 연수의 장·단점 및 교과서와의 부합 정도    |
|                        | 15   | 국악 연수를 제외한 개인 연수의 경험 여부 및 방법      |
|                        | 16   | 희망하는 국악 관련 연수 내용                  |
| 국악지도에<br>대한 인식<br>및 과제 | 17   | 음악전담교사제 및 국악강사 풀(POOL)제에 대한 의견    |
|                        | 18   |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한 우선적 해결 과제에 대한 의견   |
|                        | 19   | 효과적인 국악 지도 방법                     |

#### 4.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기호화 작업을 한 후 Windows용 PASW(SPSS) 18.0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주관적인 국악 지도의 어려움 및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응답된 내용을 유사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 분석한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모든 사례를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전사하여 정리, 분석한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설문지 결과

본 설문지에 응답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총 207명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교사의 인적사항

본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응답자의 성별

설문지 1번 문항, 교사의 성별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중 여교사는 176명(85.0%), 남교사는 31명(15.0%)으로 여교사가 많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교사의 성별

| 성별 | 빈도(명) | 백분율(%) |
|----|-------|--------|
| 여  | 176   | 85.0   |
| 남  | 31    | 15.0   |
| 합계 | 207   | 100.0  |

#### 나. 교직경력

설문지 2번 문항, 교사의 교직경력을 묻는 문항에서 5년 이하는 49명, 10년 이하는 39명, 15년 이하는 47명, 20년 이하는 20명, 20년 이상은 52명으로 20년 이상이 25.1%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 1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 교사의 교직경력

| 교직경력   | 빈도(명) |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
| 5년 이하  | 49    | 23.7   | 23.7      |
| 10년 이하 | 39    | 18.8   | 42.5      |
| 15년 이하 | 47    | 22.7   | 65.2      |
| 20년 이하 | 20    | 9.7    | 74.9      |
| 20년 이상 | 52    | 25.1   | 100.0     |
| 합계     | 168   | 100.0  | 100.0     |

#### 다. 교사의 심화전공

설문지 3번 문항, 교사의 심화전공을 묻는 문항에서 국어과는 32명, 수학과는 16명, 사회과는 19명, 과학과는 22명, 윤리과는 10명, 음악과는 14명, 미술과는 19명, 체육과는 9명, 실업과는 8명, 컴퓨터과는 5명, 영어과는 14명, 기타는 35명으로 국어과가 15.5%로 가장 많았고(기타 제외) 과학과, 미술과, 사회과, 수학과와 음악과, 영어과, 윤리과, 체육과, 실업과, 컴퓨터과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전공 교사와 비음악 전공 교사의 비율은 약 1:13.8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교사의 심화전공

| 심화전공       | 빈도(명)     | 백분율(%)     |
|------------|-----------|------------|
| 국어과        | 32        | 15.5       |
| 과학과        | 22        | 10.6       |
| 사회과        | 19        | 9.2        |
| 미술과        | 19        | 9.2        |
| 수학과        | 16        | 7.7        |
| 영어과        | 14        | 6.8        |
| <b>음악과</b> | <b>14</b> | <b>6.8</b> |
| 윤리과        | 10        | 4.8        |
| 체육과        | 9         | 4.3        |
| 실업과        | 8         | 3.9        |
| 컴퓨터과       | 5         | 2.4        |
| 기타         | 35        | 16.9       |
| 합계         | 207       | 100.0      |

## 2) 지도 환경

### 가. 실제 수업 시 국악의 비중

설문지 4번 문항, 실제 수업에서 국악을 다루는 비중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실제 수업에서 국악을 다루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0%로 89명이 ‘서양 음악에 더 비중을 둔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고르게 배분하여 가르친다.’가 32.1%로 60명, ‘서양 음악을 위주로 가르친다.’가 26.1%로 54명, ‘국악에 더 비중을 둔다.’가 4명인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악을 위주로 가르친다.’는 답변은 없었다.

전체의 69.1%가 음악 수업 시 국악에 비해 서양 음악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 음악에 편중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실제 수업 시 국악을 다루는 비중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서양 음악을 위주로 가르친다. | 54    | 26.1   |
| 서양 음악에 더 비중을 둔다. | 89    | 43.0   |
| 고르게 배분하여 가르친다.   | 60    | 29.0   |
| 국악에 더 비중을 둔다.    | 4     | 1.9    |
| 국악을 위주로 가르친다.    | 0     | 0.0    |
| 합계               | 207   | 100.0  |

#### 나. 수업에 활용하는 국악기

설문지 6번 문항, 국악 수업 시 본인이 활용하는 악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0>와 같다.

‘국악 수업 시 본인이 활용하는 악기를 모두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단소가 전체 답변의 39.4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구가 그와 비슷하게 38.42%, 북이 13.68%, 기타 악기가 5.78%, 소금이 2.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으므로 답변의 형태를 살펴보면 단소와 장구나 단소와 장구, 북을 중복 응답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 악기로는 소고, 썩과리, 박 등이 있었다.

<표 10> 수업에 활용하는 국악기(중복 응답)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장구 | 146   | 38.42  |
| 단소 | 150   | 39.47  |
| 소금 | 10    | 2.63   |
| 북  | 52    | 13.68  |
| 기타 | 22    | 5.78   |
| 합계 | 380   | 100.0  |

#### 다. 국악의 지도 내용

설문지 8번 문항, 국악의 지도 내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국악을 지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교과서만 빠짐

없이 모두 지도한다.’와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지도한다.’가 46.9%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국악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가 3.4%, ‘교과서와 상관없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지도한다.’가 1.9%, 기타가 0.6%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음악 시간에 국악을 가르치지만 교과서의 흐름대로, 교과서 내의 내용을 따라 지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1> 국악의 지도 내용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교과서만 빠짐없이 모두 지도한다.            | 97    | 46.9   |
| 교과서에서 발췌하여<br>부분적으로 지도한다.     | 97    | 46.9   |
| 교과서와 상관없이<br>가르치고 싶은 것을 지도한다. | 4     | 1.9    |
| 국악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 7     | 3.4    |
| 기타                            | 2     | 1.0    |
| 합계                            | 207   | 100.0  |

### 3) 교사의 지도 능력

#### 가.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

설문지 5번 문항,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2>과 같다.

‘국악 중 가장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창영역이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상영역이 31.9%, 기악영역이 23.7%, 이론영역이 6.3%, 창작영역이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0.5%만큼의 미 응답도 있었다.

<표 12>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가창   | 75    | 36.2   |
| 기악   | 49    | 23.7   |
| 창작   | 3     | 1.4    |
| 감상   | 66    | 31.9   |
| 이론   | 13    | 6.3    |
| 미 응답 | 1     | 0.5    |
| 합계   | 207   | 100.0  |

#### 나. 국악 지도 시 어려움 여부

설문지 7번 문항, 국악 지도 시 어려움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국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51.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가 28.0%, ‘보통이다.’가 14.5%,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가 5.3%,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가 0.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전체의 79.7%가 국악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13> 국악 지도 시 어려움 여부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
|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 58    | 28.0   | 28.0      |
| 어려움을 느낀다.        | 107   | 51.7   | 79.7      |
| 보통이다.            | 30    | 14.5   | 94.2      |
|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 11    | 5.3    | 99.5      |
|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1     | 0.5    | 100.0     |
| 합계               | 207   | 100.0  |           |

#### 다.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의 이유

설문지 7-1번 문항,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의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유사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유효 답변의 43.54%가 교사의 실기 능력 부족으로 가장 많았다. ‘국악에 대한 이론 부족’이 14.97%, ‘지도 경험 부족’이 8.85%, ‘국악의 생소함’이 8.16%, ‘국악 연수 부족’이 7.48%, ‘학생의 흥미 부족’이 5.44%, ‘환경 및 시설의 부족’이 4.76%, ‘국악에 대한 교사의 관심 부족’과 기타가 3.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시범의 부담’, ‘제재곡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58.51이 국악과 관련하여 실기나 이론에 대해 부족함을 느껴 국악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 국악 지도 시 어려움의 이유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유효 백분율(%) |
|------------|-------|--------|-----------|
| 실기 능력 부족   | 64    | 30.92  | 43.54     |
| 국악 이론 부족   | 22    | 10.63  | 14.97     |
| 지도 경험 부족   | 13    | 6.28   | 8.85      |
| 국악의 생소함    | 12    | 5.80   | 8.16      |
| 국악 연수 부족   | 11    | 5.31   | 7.48      |
| 학생 흥미 부족   | 8     | 3.86   | 5.44      |
| 환경 및 시설 부족 | 7     | 3.38   | 4.76      |
| 관심 부족      | 5     | 2.42   | 3.40      |
| 기타         | 5     | 2.42   | 3.40      |
| 미 응답       | 60    | 28.78  |           |
| 합계         | 207   | 100.00 | 100.00    |

#### 4) 국악 관련 연수 현황

##### 가. 연수 경험 횟수

설문지 9번 문항, 연수 경험 횟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선생님의 국악 실기 관련 연수경험은 몇 회입니까?’라는 질문에 ‘아직 없다.’가 49.3%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3.7%, 2회가 16.4%, 3회가 5.8%, 4회 이상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의 절반 정도가 국악 실기에 관련된 연수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회 이하의 연수 경험자는 전체의 72.9%나 되었다.

<표 15> 연수 경험 횟수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
| 아직 없다. | 102   | 49.3   | 49.3      |
| 1회     | 49    | 23.7   | 72.9      |
| 2회     | 34    | 16.4   | 89.4      |
| 3회     | 12    | 5.8    | 95.2      |
| 4회 이상  | 10    | 4.8    | 100.0     |
| 합계     | 207   | 100.0  |           |

##### 나. 연수의 효과

설문지 9-1번 문항, 연수의 효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국악 연수의 경험이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효과가 있는 편이다.’가 55.0%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많다.’가 26.6%, ‘보통이다.’가 14.7%, ‘효과가 부족하다.’가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효과가 없다.’는 답변은 없었다.

이 결과로 국악 연수의 효과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느낀 응답자는 81.7%였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 느낀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연수에 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연수의 효과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누적 백분율(%) |
|-------------|-------|--------|-----------|
| 효과가 많다.     | 29    | 26.6   | 26.6      |
| 효과가 있는 편이다. | 60    | 55.0   | 81.7      |
| 보통이다.       | 16    | 14.7   | 96.3      |
| 효과가 부족하다.   | 4     | 3.7    | 100.0     |
| 전혀 효과가 없다.  | 0     | 0      | 100.0     |
| 합계          | 109   | 100.0  |           |

#### 다. 희망하는 연수 내용

설문지 10번 문항, 희망하는 연수 내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연수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고 싶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기악영역이 70.0%로 가장 많았고 가창영역이 15.0%, 감상영역이 5.8%, 창작영역이 5.3%, 이론영역이 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 응답이 1.4%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기악영역이 70.0%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교사들이 국악기를 다루

고 잘 연주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희망하는 연수 내용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가창   | 31    | 15.0   |
| 기악   | 145   | 70.0   |
| 창작   | 11    | 5.3    |
| 감상   | 12    | 5.8    |
| 이론   | 5     | 2.4    |
| 미 응답 | 3     | 1.4    |
| 합계   | 207   | 100.0  |

## 5) 국악 지도에 대한 인식 및 과제

### 가.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에서의 필요

설문지 11번 문항,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에서의 필요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8>과 같다.

‘국악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국악전문 강사 초빙’이 55.6%로 가장 많았고 ‘국악 연수’가 18.81%, ‘교수 학습자료 확충’ 15.0%, ‘국악기 구입’이 8.2%, 기타가 2.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국악실 마련’,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국악 콘텐츠’, ‘국악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받는다’ 등이 있었다.

<표 18>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에서의 필요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국악기 구입     | 17    | 8.2    |
| 교수 학습자료 확충 | 31    | 15.0   |
| 국악전문 강사 초빙 | 115   | 55.6   |
| 국악 연수      | 39    | 18.81  |
| 기타         | 5     | 2.4    |
| 합계         | 207   | 100.0  |

### 나. 국악 발전을 위한 과제

설문지 12번 문항, 국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19>와 같다.

‘국악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교사를 위한 국악 연수 강화’가 47.8%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국악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28.0%, ‘교육대학에서 국악교육 강화’가 18.8%, ‘교과서의 국악 비중 강화’가 4.8%, ‘교사 임용 시험에 국악 과목 강화’가 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국악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교과서의 국악 비중 강화              | 10    | 4.8    |
| 교사의 국악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 58    | 28.0   |
| 교육대학에서 국악교육 강화             | 39    | 18.8   |
| 교사 임용 시험에 국악 과목 강화         | 1     | 0.5    |
| 교사를 위한 국악 연수 강화            | 99    | 47.8   |
| 합계                         | 207   | 100.0  |

#### 다. 교육대학의 국악교육 만족도

설문지 13번 문항, 교육대학의 국악교육 만족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20>와 같다.

‘교육대학의 국악 관련 강의가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44.4%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도움이 된다.’와 ‘보통이다.’가 18.4%로 동일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 또한 동일하게 9.2%, 미 응답이 0.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전체 응답자

의 63.1%가 교육대학의 국악 관련 강의가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교육대학의 국악교육 만족도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
| 많은 도움이 된다.    | 38    | 18.4   |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92    | 44.4   |
| 보통이다.         | 38    | 18.4   |
|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9    | 9.2    |
| 잘 모르겠다.       | 19    | 9.2    |
| 미 응답          | 1     | 0.5    |
| 합계            | 207   | 100.0  |

#### 라. 효과적 국악지도의 방법

설문지 14번 문항, 효과적 국악지도의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교사가 국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유사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유효 답변의 45.90%가 ‘연수 경험 증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사의 실력 증가’가 18.03%, ‘국악에 대한 관심’이 14.75%, ‘국악의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의 대중화’가 5.74%, ‘국악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초빙 등의 교육과정 개선’이 5.74%, ‘교육 환경 개선’이 4.10%, 기타가 5.7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 ‘교육대학 교육의 발전’, ‘지도 기회의 증가’ 등이 있었다.

<표 21> 효과적 국악지도의 방법

| 항목        | 빈도(명) | 백분율(%) | 유효 백분율(%) |
|-----------|-------|--------|-----------|
| 연수 경험 증가  | 56    | 27.05  | 45.90     |
| 교사의 실력 증가 | 22    | 10.63  | 18.03     |
| 국악에 대한 관심 | 18    | 8.7    | 14.75     |
| 국악의 대중화   | 7     | 3.38   | 5.74      |
| 교육과정 개선   | 7     | 3.38   | 5.74      |
| 교육 환경 개선  | 5     | 2.42   | 4.10      |
| 기타        | 7     | 3.38   | 5.74      |
| 미 응답      | 85    | 41.06  |           |
| 합계        | 207   | 100.00 | 100.00    |

## 6) 문항 간 분석

### 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주관적인 국악 지도의 어려움 및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국악 지도의 어려움이 교직 경력, 국악수업에서 활용하는 악기의 수, 국악 실기 관련 연수 경험, 수업에서 국악을 다루는 비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2>

분석 전 교사들이 지각한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실제 설문 문항의 역순으로 코딩입력 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이 지각한 국악 지도의 주관적인 어려움은 국악 수업에서 다루는 악기 수( $r=-.21, p<.01$ ), 국악 실기 연수 경험( $r=-.16, p<.05$ )과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다루는 국악의 비중과는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0, p<.01$ ). 주관적인 어려움과 교직 경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들의 국악 실기 연수 경험은 교직 경력( $r=.37, p<.01$ ), 국악수업에서 활용하는 악기의 수( $r=.34, p<.01$ )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시간에 다루는 국악의 비중과 다루는 악기 수도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5, p<.05$ ) 즉, 주관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사용하는 악기 수와 연수 경험이 적었고 특히 수업 시간 내 국악의 비중이 더 적었다. 교직 경력이 오래 된 사람은 연수 경험이 많았으며,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수업시간에 다루는 국악 악기 수도 더 많았다. 또한 수업시간에 국악의 비중이 높을수록 다루는 악기 수도 많았다.

<표 22>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 경력과 지도 실태, 연수 경험, 지각한 어려움 간의 상관관계

|         | 교직 경력 | 악기 수   | 연수 경험 | 국악의 비중 | 주관적 어려움 |
|---------|-------|--------|-------|--------|---------|
| 교직 경력   | -     |        |       |        |         |
| 악기 수    | .04   | -      |       |        |         |
| 연수 경험   | .37** | .36**  | -     |        |         |
| 국악의 비중  | .02   | .15*   | .11   | -      |         |
| 주관적 어려움 | .07   | -.21** | -.16* | -.40** | -       |

\*\*  $p < .01$ , \*  $p < .05$

## 나. 국악 지도에서 수월함을 느끼는 영역에 따른 지각된 주관적 어려움의 차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국악 지도에서 수월하게 느끼는 영역에 따라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창, 기악, 창작을 국악 실기 영역으로 감상과 이론을 국악 비 실기 영역으로 코딩 변경하여 수월한 영역의 차이에 따른 국악 지도의 어려움이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지도의 수월함을 느끼는 영역에 따라 국악 지도의 주관적인 어려움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3>

분석 결과, 교사들이 지도할 때 수월함을 느끼는 영역이 실기 영역인지, 비 실기 영역인지에 따라 지각하는 지도의 주관적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기 영역에 수월함을 느끼는 교사들이 국악 지도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수월함을 느끼는 영역에 따른 국악 지도의 주관적 어려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         | 실기 영역     | 비실기 영역    | t      |
|---------|-----------|-----------|--------|
|         | 평균(표준편차)  | 평균(표준편차)  |        |
| 주관적 어려움 | 3.88(.86) | 4.23(.73) | 2.97** |

\*\*  $p < .01$

**다. 국악 지도 내용에 따른 지각된 주관적 어려움의 차이**

교사들이 국악을 지도하는 내용에 따라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4>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교과서를 빠짐없이 모두 지도하는 집단은 교과서를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지도하는 집단 및 국악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집단보다 주관적인 어려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집단에 비해서는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국악 지도 내용에 따른 지각된 주관적 어려움의 ANOVA 분석 결과

|            | 교과서<br>모두 <sup>1)</sup> | 교과서<br>발췌 <sup>2)</sup> | 가르치고<br>싫은 것 <sup>3)</sup> | 거의 가르치지<br>않음 <sup>4)</sup> | 기타 <sup>5)</sup> | F       | Dunnett<br>T3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                   |
| 주관적<br>어려움 | 3.81(.75)               | 4.16(.85)               | 4.00(.82)                  | 5.00(.00)                   | 3.00(.00)        | 5.99*** | 1 < 2, 4<br>1 > 5 |

\*\*\* $p < .001$

#### 라. 연수 경험과 연수 효과의 관계

국악 실기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연수 경험 횟수와 연수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 ,  $p<.05$ ). 즉,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연수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OVA 분석 결과, 연수 경험 횟수에 따른 연수 효과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25>

<표 25> 연수 경험과 연수 효과의 상관관계

|       | 연수 경험 | 연수 효과 |
|-------|-------|-------|
| 연수 경험 | -     |       |
| 연수 효과 | .21*  | -     |

\*  $p < .05$

#### 마. 연수 경험이 지각된 주관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국악 실기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교사들이 지각한 국악 지도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악 실기 관련 연수 경험은 국악 지도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악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국악 연수경험으로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예언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인    | 예언변인    | $\beta$ | F     |
|---------|---------|---------|-------|
| 지도의 어려움 | 국악 연수경험 | -.16    | 5.53* |

\* $p < .05$

## 2.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는 설문지에 참여한 207명의 초등학교 교사들 중 지원을 받아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전체 음악 수업 중 국악의 비중과 그 이유

전체 음악 수업 중 국악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 10명이 30%정도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50%가 4명, 10%와 40%가 3명으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평균 국악의 비중은 32.5%였다.

D 교사: 국악과 서양 음악이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F 교사: 교과서대로 하게 되면 30% 정도요.

L 교사: 40%정도로, 전체 61차시 중에 26차시 차지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D 교사: 아이들이 서양 음악에 많이 노출되어있고, 교사도 국악을 가르칠 역량이 안 되다 보니 서양 음악에 치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F 교사: 교과서에서도 기악부분은 국악기보다 리코더가 많아서 장구나 단소 지도는 상대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 교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지도서를 따르게 됩니다.

## 2) 국악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

국악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11명이 '지루해한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어려워한다.'가 6명, '좋아한다.'가 4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좋아한다.'고 대답한 응답 중에 국악 모든 영역을 다 좋아하는 경우는 1명, 가창영역만 좋아하는 경우는 2명, 기악영역을 좋아하는 경우는 1명이었다.

K 교사: 굉장히 지루해 합니다. 감상을 예를 들어 서양 음악은 익숙한 곡들도 많기 때문에 감상평도 더 상세한데, 국악은 흥미 있어 하지 않습니다.

E 교사: 많이 어려워합니다.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도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려워하게 됩니다.

O 교사: 전반적으로 흥미가 부족하며 어려워하고 지루해 합니다. 국악이 자신의 생활과 동떨어진 음악이란 생각이 강해서 배우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M 교사: 6학년 1학기는 20%정도, 6학년 2학기는 70%정도 국악이 나옵니다. 2학기에는 계속 국악이 나오니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노래도 처음 들어보는 곡이 많고, 악기도 소금이 등장하여 단소도 못 부는 아이들은 국악은 그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3) 교과서 활용정도와 교과서 외 수업자료 여부

교과서 활용정도와 교과서 외 수업자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서 17명이 주로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그 밖에도 동영상이나 CD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다고 대답하였고, 3명은 교과서만 사용한다

고 대답하였다.

I 교사: 주로 교과서를 사용하고, 필요한 음향은 초등 교사들이 이용하는 *i-Scream*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교과서 외에 방대하게 자료들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교과서만 사용하기도 벅찬 것 같습니다.

#### 4) 실제 국악 수업 시 지도 영역

실제 국악 수업 시 영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모든 영역을 골고루 지도한다.’가 10명, ‘가창영역과 기악영역을 위주로 지도한다.’가 6명, ‘가창영역을 위주로 지도한다.’가 4명의 순으로 답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이 ‘골고루 지도한다.’라고 대답했지만 교육과정 상 가창영역과 기악영역의 비중이 나머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창영역과 기악영역을 위주로 지도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H 교사: 주로 기악과 가창 위주로 지도합니다. 감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찾아서 가르치지 못하고 감상보다 요구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도하게 됩니다.

T 교사: 가창이나 기악 위주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으로 감상을 지도합니다. 국악의 경우 창작은 거의 지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창과 기악을 지도하면서 이해영역도 추가하여 지도합니다.

## 5)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갖는 영역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갖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기악영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악영역 중에도 장구나 소고 등의 타악기가 12명, 단소가 1명으로 답하였다. 다음으로 가창영역이 6명, 감상영역이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H 교사: 5~6학년의 경우 아이들이 변성기가 오기 때문에 가창보다는 악기를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장구의 경우 무릎이나 책상을 두드리면서 장단을 익히고 난 후 악기를 직접 연주합니다.

J 교사: 장구 같은 타악기의 장단을 직접 연주하고 두드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P 교사: 그나마 장구라 같은 타악기를 할 때 흥미를 느낍니다.

## 6)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기악영역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창영역이 7명, 이해영역과 감상영역이 각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악영역의 경우 응답자 11명 중에 7명이 '단소'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A 교사: 악기의 경우 자기가 직접 해봐야 하는데, 단소는 소리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소리가 나고 곡을 연주하게 되면 재미있어 하지만 악기 수업을 할 때 비교적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F 교사: 단소를 어려워합니다. 정간보가 어렵고 소리를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G 교사: 국악기 수업을 대체로 어려워합니다. 또한 사물놀이의 경우 옆 교실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도가 어렵기도 합니다.

## 7) 교과서 내 국악 제재곡의 선정 기준

교과서 내 국악 제재곡의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교육과정대로 선정한다.’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중성’이 3명, ‘곡의 난이도’가 2명, ‘학생의 흥미’와 ‘곡의 전통성’이 각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I 교사: 교과서에 나온 순서나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곡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담임교사의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대개 따라가려고 합니다.

K 교사: 대부분 민요나 부르기 쉽고 교사 본인이 익숙한 곡들을 우선으로 지도합니다.

또한 1년간 지도하게 되는 제재곡의 수를 묻는 질문의 결과 평균 7.1곡의 제재곡을 지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 교사: 전체적으로 한번 씩은 다루는 것 같습니다.

Q 교사: 교과서에 있는 곡들을 전부 다루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지도 보다는 한 차시 정도로 줄여서 불러보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지도합니다.

K 교사: 교과서대로 지도합니다. 교과서 비중은 반반이라고 하는데, 체감하는 정도는 서양 음악보다는 국악이 적은 것 같습니다.

## 8)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과 지도 방법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과 지도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감상영역을 지도하지 않는 1명을 제외한 19명의 평균적 비중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전체가 음원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이용하여 연주영상을 보여준다고 답하였다.

C 교사: 네, 사물놀이나 판소리의 경우 영화 등의 비디오 자료를 이용하여 보여주면서 좋은 음악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J 교사: 감상영역을 특별히 따로 지도하지는 않았고 다른 영역을 할 때 시간을 할애하여 들려줍니다. 요즘엔 음원만 들려주기보다 동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연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 9) 국악 실기 지도 시 구체적 수업 형태 및 교수법

국악 실기 지도 시 구체적 수업 형태 및 교수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전체적(개별) 수업 형태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듬 형태가 6명, 반으로 나눈 형태가 1명, 기타가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선정한 수업 모형을 의미한다.

E 교사: 학교 자체 내에 있는 '스마트 수업모형'을 활용합니다. 호기심 유발 및 ICT활용을 활성화하는 수업모형입니다.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합니다.

## 10) 국악 연수의 참여 여부 및 만족도

국악 연수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는 13명이었고,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는 7명이었다. 연수 경험이 있는 7명의 교사 중 6명이 실제 국악지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1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A 교사: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사들은 평생 배워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방학이라든지 학기 중이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B 교사: 그럼요. 예컨 들어 장구를 30시간 씩 배워보고, 다른 연수도 30시간 받아 보았습니다.

S 교사: 많이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수를 받아보긴 했지만 너무 어렵고, 단시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장단을 온전히 습득하기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수의 내용이 교과서와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A 교사: 제가 참여한 연수 중에는 교과서와 관계가 없어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 연마를 위해서는 관계가 없어도 참여합니다.

B 교사: 연수 없이 교과서를 접하거나 생소한 제재곡을 가르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S 교사: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과서대로 연수가 진행되면 좋지만, 대부분의 연수는 실기나 기술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활용할 요소들은 많지 않습니다.

## 11) 국악 연수를 제외한 개인 연수의 경험 여부

국악 연수를 제외한 개인 연수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11명이 개인적으로 연수를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9명이 개인적인 연수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개인 연수의 예로는 사설 학원, 전문 강사 초빙, 개인 연습, 자료 조사 등이 있었다.

G 교사: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연습을 했습니다.

K 교사: 네, 저는 단소라 장구를 배웠습니다. 단소 협회에 찾아가 기초반부터 배웠고, 장구는 강사를 학교로 초빙하여 뜻이 맞는 교사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 12) 음악전담교사제 및 국악강사 풀(POOL)제에 대한 의견

음악전담교사제 및 국악강사 풀(POOL)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 20명 중에 반대의견 1명을 제외한 19명이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F 교사: 고학년의 경우 전문 강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L 교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빠르고 모범적인 국악 전문 강사의 시범을 통해 국악을 인식해야 우리 음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 교사: 오랫동안 국악을 연구해 오신 분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10시간 정도 국악 강사가 오시게 하는데, 제가 평소에 지도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악 선생님이 오실 때 더 배워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수업을 참관하는데, 아이들도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I 교사: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도 교수법이나 지도 노하우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3)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한 우선적 해결 과제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한 우선적 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답변들이 많았다. 교사를 위한 국악 연수가 많아져야 한다가 가장 많았고(8명), 그 밖에도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개편, 전담 교사, 시설의 개선, 교육체계의 변화, 국악에 대한 경험, 학교 내 국악기 마련, 국악의 대중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D 교사: 국악기가 충분히 구비가 되어야 하고,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악을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양 음악의 경우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국악 한마당'과 같은 국악 프로그램을 방영하더라도 새벽이나 밤늦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 교사: 제 주변에서 국악을 능숙하게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를 위한 국악 연수가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O 교사: 국악을 떠나 음악 교과 자체가 중요시 되지 않는 현 교육체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사: 교육 과정의 재편성입니다.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음악은 검정 교과서로 5개 교과서가 있습니다. 국악에 대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제재곡들이 그만큼 다양하다 보니 교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년도 해마다 바뀌는데다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교과서까지 바뀌게 되면 거의 처음 접하게 되는 곡이 대부분입니다.

#### 14) 효과적인 국악 지도 방법

효과적인 국악 지도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들이 많았다. 국악에 대한 경험을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5명), 그 밖에도 국악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가, 아이들의 흥미 유발, 제재곡의 개편, 쉽고 흥미 있는 교수법, 국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B 교사: 선생님들이 국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연구도 많아지게 되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악기도 많이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E 교사: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국악 제재곡이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므로 그 외에 생소한 음악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정서에 맞는 노래들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J 교사: 국악은 아이들이 충분히 좋아할 수 있고, 신체활동을 접목하여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 교사: 국악은 우리 민족의 얼이라는 막연한 당위성만으로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현대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보급, 실제 수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쉬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학교에 국악 전공자를 배치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의 국악 관련 단체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수업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의 구축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교사: 일단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학생들에게만 국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라도 국악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국악을 배우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

는 일선 교사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음악 수업에서, 그 중에서도 국악을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직접 하라는 것은 진짜 국악에 관심 있는 일부 교사를 제외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악의 활성화는 교과서에서의 비중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악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시수만 늘어나니 할 내용은 없고 더 지루해지기만 하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악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국악을 전공하시고 국악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 아이들에게 국악이란 여전히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의 호응과 실력적인 편차 및 교사들의 지도력 등으로 인해 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 국악의 비중만큼 실제적인 국악 지도의 양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들 또한 아직 국악 지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그에 따라 각기 수업의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지지만, 모두가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악교육은 변화를 거쳐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재 교육청에 속한 초등학교의 음악을 가르치는 담임교사 207명을 설문 조사하고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국악 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음악 수업의 국악의 비중은 전체의 69.1%가 국악에 비해 서양 음악을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양 음악에 편중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국악 수업 시 지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과서만 빠짐없이 모두 지도하는 경우와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각각 동일하게 46.9%로 전체 응답자의 93.8%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악을 지도하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국악의 비중 또한 30%정도로 적었다. 또한 국악 수업 시 활용하는 국악기에는 장구와 단소가 가장 많았으며 두 악기를 중복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소금과 북 등이 있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국악의 어려움과 지도하는 악기의 수, 국악 실기 연수 경험은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다루는 국악의 비중과는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0, p<.01$ ). 또한 교사들이 지도하기 수월한 국악 영역에 따라 국악 지도의 주관적인 어려움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창영역과 기악영역과 창작영역을 실기영역으로, 감상영역과 이해영역을 비 실기영역으로 임의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기 영역에 수월함을 느끼는 교사들이 국악 지도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교사를 위한 국악 연수의 강화라고 답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악 연수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고, 이 외에도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개편, 전담 교사, 시설의 개선, 교육체계의 변화, 국악에 대한 경험, 학교 내 국악기 마련, 국악의 대중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셋째, 국악 수업 시 비교적 수월하게 지도하는 내용은 가창영역과 기악영역과 감상영역이 각 36.2%, 23.7%, 31.9%인 것으로 보아 영역 간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 응답 교사의 79.7%가 국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8.0%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교사가 국악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실기지도나 이론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국악을 지도하는 내용에 따라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분석과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과서를 빠짐없이 모두 지도하는 집단은 교과서를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지도하는 집단 및 국악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집단보다 주관적인 어려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집단에 비해서는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국악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밖에도 ‘학교 내 국악기 마련, 교사-학습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교사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

해서 국악 전문 강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넷째, 초등 교사들의 국악 실기 관련 연수의 횟수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 포함, 1회 이하의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응답자의 72.9%나 되었다. 연수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26.6%가 '효과가 많았다.'고 답하였고, 55.0%가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답하여 전체의 81.9%가 연수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조사한 결과, 교원 임용 후에 기본 연수를 제외 한 연수의 경험은 거의 드물었다. 또한 교사들의 연수 경험 횟수와 연수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연수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 p<.05$ ), 국악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국악 지도의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해 교사를 위한 연수의 기회가 많아져 국악에 대한 교사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적인 연수의 경험은 어렵다고 답하였다.

위의 결과로 도출된 현 초등교사의 국악 지도 실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국악은 학생들에게는 물론 교사에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음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과정 내의 국악의 비중도 절반에 이르게 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국악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가 높고 이에 따라 실제 음악 수업 시 국악의 비중은 서양 음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교사가 국악 제재곡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하기 급급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국악에 관련된 연수의 기회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의 연수의 경험은 매우 적고, 그 기회도 적다. 국악 연수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연수의 효과가 많음을 인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어 꾸준히 연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연수나 세미나를 제외한 국악 실력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연수의 경험도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연수에 참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대신할 만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위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교과서가 개편될 때마다 교사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만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년이 바뀌고 근무하는 학교가 바뀌게 될 때에도 교과서마다 국악 제재곡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제재곡을 지도할 준비 또한 쉽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악에 관련된 연수의 강화이다. 이는 연수의 횟수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확실한 개편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결과, 교사 경력이 오래될수록 연수 경험도 많았는데,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국악 지도에 대해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 국악 연수의 기회가 더욱 많아져야 하며, 교사들이 바쁜 업무시간을 피해 효율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도 시대 변화에 적합한 연수의 내용으로 국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국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이다. 누구나 국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악은 지루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흐름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 국악기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며 국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 강사의 지원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개인의 국악 실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국 교사이다. 학습을 주도하는 교사가 국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효과적인 국악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국악의 발전과 활성화는 교과서의 비중을 높인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높인다면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국악이 많이 노출되고 국악을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사를 주체로 한 국악교육 실태 조사 연구의 특성상 학생들의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 실태를 조사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이 연구를 기초로 국악교육의 질적 제고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2007).  
교육부. 교육과정 해설서.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1999).  
권덕원 저. 국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2009).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과학교육사(2008).  
김우현 저. 전통음악의 원리와 교육. 서울: 한국음악교육연구회(1995).  
민경훈 외.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2011).  
백병동 저. 대학음악이론 제 3판. 서울: 현대음악출판사(1977).  
장사훈 저. 국악통론. 서울: 세광출판사(1976).  
최종민 저. 국악의 새로운 숨결. 서울: 행림출판(1998).

### [학술지]

- 변미혜(2006).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교원교육. Vol.32,  
No.4.

### [학위논문]

- 권순주(2000),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음악교과 전담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은숙(2002),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연구, 원

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후분(1994), 학위논문(석사) 국악교육 실태 연구에 따른 국악 감상학습의 제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민재은(2008),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 국악교육의 실태: 국악수업의 활동내용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수정(2012), 학위논문(석사) 2007 초등 음악교과서의 국악 영역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명주(2009), 학위논문(석사)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악 제재곡 지도 실태 조사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승아(2000), 학위논문(석사) 중학교 국악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애선(2009), 학위논문(석사) 초등학교의 국악교육 지도 실태 조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Ga-Young,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ing the actual state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guidance i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t schools, investigating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traditional music, and presenting the problems with ways to improve th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Research obj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proportion of traditional music lessons in schools' curriculum and the extent of usage of textbook and instruments to underst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specific situation in the traditional music classes. Second,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gree of difficulty in teaching and their skills, examining how their lessons are being delivered effectively to students. Third, inquiring traditional music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needs

and satisfa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Lastly, with the in-depth interviews, investigation of current training situ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ir methods in study Korean traditional musical pieces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that educators should solve for the advance i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examine they developed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that targeting 207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belong to each local education office, Seoul, Gyeonggi, Incheon, Daejeon. Based on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responses, researchers performed a correlation analysis for each question using Windows PASW (SPSS) 18.0 and a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ubjective difficulty in teaching and other factor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and the suggestions.

First, the Western music takes bigger proportion of the curriculum in the music classes tha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eachers usually focus on the textbook when they teach traditional music. However,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tells that even teachers teach students through the textbook, they feel insufficiency in the way of guidance and the learning materials of a textbook. Therefore, we need to reorganize the textbook properly and prepare various learning materials and suitable condition for effective studying.

Second, the areas that are relatively straightforward in a traditional music class are 36.2% for singing area, 23.7% for instrumental area, and

31.9% for the listening area. Although there are no big difference between areas, 79.7% of the respondents represent that they feel a difficulty in teaching the subject. It is because they feel their own insufficiency themselves. Henc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teachers who require to study more and make an effort.

Third, close to the half of the respon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aid they had no Korean traditional music practical training. There is 72.9 percent teachers who had no practical training or only one training. The research shows that teachers had more training experience had less difficulty in teaching traditional music. ( $P < .05$ ) Therefore, we suggest to develop the quality and quant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ractical training.

Forth,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difficulties of the traditional music that teachers feel, the number of instruments they teach ( $r = -.21, p < .01$ ), and the number of practical training they took. ( $r = -.16, p < .05$ ) These are also highly correlated with the proportion of traditional music in a curriculum of the music class. ( $r = -.40, p < .01$ ) In addition, the result of an independent sample t-test that set singing, instrumental music, and composition in practical area and set listening and theory in non-practical area shows that teachers who feel comfortable with the practical area have less difficulty in teaching. ( $t = 2.97, p < .01$ )

As mentioned earlier, traditional music has several problems. However, since many peopl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music and

they also know efforts and interests are necessar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t will continue to evolve through many changes.

[부 록 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교사의 국악지도 실태 및 인식 조사에 관한 설문지입니다. 졸업논문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김가영  
 지도교수: 현경실  
 E-mail: dmackrydr@naver.com

\* 아래의 문항을 보시고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하여 주시고 기타 및 공란에 좋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2. 선생님의 교직경력(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5년 이하    ② 10년 이하    ③ 15년 이하    ④ 20년 이하    ⑤ 20년 이상

3. 선생님의 심화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국어과    ② 수학과    ③ 사회과    ④ 과학과    ⑤ 윤리과    ⑥ 음악과
- ⑦ 미술과    ⑧ 체육과    ⑨ 실업과    ⑩ 컴퓨터과    ⑪ 영어과    ⑫ 기타(                    )

4. 실제 수업에서 국악을 다루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서양 음악을 위주로 가르친다.
- ② 서양 음악에 더 비중을 둔다.
- ③ 고르게 배분하여 가르친다.
- ④ 국악에 더 비중을 둔다.
- ⑤ 국악을 위주로 가르친다.

5. 국악 중 가장 지도하기 수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⑤ 이론

6. 국악 수업 시 본인이 활용하는 악기를 모두 고르시오.

- ① 장구    ② 단소    ③ 소금    ④ 북    ⑤ 기타(                    )

7. 국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①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② 어려움을 느낀다.    ③ 보통이다.
- ④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⑤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7-1.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8. 국악을 지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교과서만 빠짐없이 모두 지도한다.
- ②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지도한다.
- ③ 교과서와 상관없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지도한다.
- ④ 국악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 ⑤ 기타( )

9. 선생님의 국악 실기 관련 연수 경험은 몇 회 입니까?

- ① 아직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9-1. 국악 연수의 경험이 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효과가 많다.    ② 효과가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효과가 부족하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10. 연수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고 싶습니까?

- ① 가창    ② 기악    ③ 창작    ④ 감상    ⑤ 이론

11. 국악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악기 구입    ② 교수 학습자료 확충    ③ 국악전문 강사 초빙
- ④ 국악연수    ⑤ 기타( )

12. 국악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과서의 국악 비중 강화
- ② 교사의 국악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
- ③ 교육대학에서 국악교육 강화
- ④ 교사 임용 시험에 국악 과목 강화
- ⑤ 교사를 위한 국악 연수 강화

13. **교육대학**의 국악 관련 강의가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십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14. 교사가 국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09) (반면에) 아이들이 유독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국악)분야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영역입니까?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 10) 국악가창은 장르를 불문하고 가르치십니까?  
 선생님이 선호 특정한 장르가 있으신가요?  
 가창을 가르치는 순서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11) 국악 감상수업도 하십니까?  
 전체 음악 수업에서 감상 수업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 12) 실기 수업을 할 때 수업모형(개인별, 그룹, 통합 등)이나 특별한 교수법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13) 국악에 관련된 과제를 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14) 국악연수나 세미나에 참여해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연수의 내용이 교과서와 부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반대로, 아쉬웠던 연수가 있었습니까? 어느 점에서 아쉬웠나요?)
- 15) (단체 연수나 세미나를 제외하고)  
 선생님의 국악 지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연습을 하시거나 자료 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사설 학원 등의 개인적인 연수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 16) 앞으로 국악 관련 연수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 17) 음악전담교사제나 국악강사 풀(Pool)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 효과적인 국악 지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9) 어떻게 해야 국악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국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ABSTRACT**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Ga-Young,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ing the actual state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guidance i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t schools, investigating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traditional music, and presenting the problems with ways to improve th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Research obj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proportion of traditional music lessons in schools' curriculum and the extent of usage of textbook and instruments to underst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specific situation in the traditional music classes. Second,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degree of difficulty in teaching and their skills, examining how their lessons are being delivered effectively to students. Third, inquiring traditional music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needs and satisfa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Lastly, with the in-depth

interviews, investigation of current training situ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ir methods in study Korean traditional musical pieces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that educators should solve for the advance i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examine they developed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that targeting 207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belong to each local education office, Seoul, Gyeonggi, Incheon, Daejeon. Based on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responses, researchers performed a correlation analysis for each question using Windows PASW (SPSS) 18.0 and a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ubjective difficulty in teaching and other factor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and the suggestions.

First, the Western music takes bigger proportion of the curriculum in the music classes tha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eachers usually focus on the textbook when they teach traditional music. However,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tells that even teachers teach students through the textbook, they feel insufficiency in the way of guidance and the learning materials of a textbook. Therefore, we need to reorganize the textbook properly and prepare various learning materials and suitable condition for effective studying.

Second, the areas that are relatively straightforward in a traditional music class are 36.2% for singing area, 23.7% for instrumental area, and 31.9% for the listening area. Although there are no big difference between areas, 79.7% of the respondents represent that they feel a difficulty in teaching the subject. It is because they feel their own

insufficiency themselves. Henc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teachers who require to study more and make an effort.

Third, close to the half of the respon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aid they had no Korean traditional music practical training. There is 72.9 percent teachers who had no practical training or only one training. The research shows that teachers had more training experience had less difficulty in teaching traditional music. ( $P < .05$ ) Therefore, we suggest to develop the quality and quant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practical training.

Forth,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difficulties of the traditional music that teachers feel, the number of instruments they teach ( $r = -.21, p < .01$ ), and the number of practical training they took. ( $r = -.16, p < .05$ ) These are also highly correlated with the proportion of traditional music in a curriculum of the music class. ( $r = -.40, p < .01$ ) In addition, the result of an independent sample t-test that set singing, instrumental music, and composition in practical area and set listening and theory in non-practical area shows that teachers who feel comfortable with the practical area have less difficulty in teaching. ( $t = 2.97, p < .01$ )

As mentioned earlier, traditional music has several problems. However, since many peopl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music and they also know efforts and interests are necessar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t will continue to evolve through many changes.